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빚 고통 해방구

채무조정·재무상담·불법추심 등 7473건 상담, 366억원 채무 탕감
기초생활보장·자활 등 복지 연계

광주 광산구민들이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진행된 가계부 교실에 참여해 다양한 경제 수업을 듣고 있다.

광주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빚으로 고통 받는 구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2016년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 4층에 문을 연 센터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 삶을 지키는 복지'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에 운영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총 13곳(2021년 1월 기준)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자체 운영하고 있는 곳은 광산구가 유일하다.

광산구의 금융복지상담센터 기능은 크게 네 가지다.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건강한 자산형성을 돕는 재무상담, 불법 추심상담, 복지 연계 등이다. 센터의 문은 광산구민 모두에게 열려 있다. 악성 채무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했거나 불법 사금융,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누구라도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개소 이후 지금까지 상담 실적만 총 7473건에 달한다. 평균 하루 6~7건 상담이 꾸준히 이뤄졌다. 유형별로 보면 채무조정 상담이 전체 상담 건수 중 9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파산·회생 등을 통해 309건 366억 원의 채무를 탕감하는 실적을 거뒀다. 주식, 코인 등 무리한 투자를 하다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은 A씨의 경우 지난해 초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파산면책을 신청해 새 출발 기회를 얻었다.

또 트럭노점상을 하는 한 부부는 소득보다 빚이 더 많아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다가 센터를 통해 법을 초과한 대출이자를 상환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부당이익반환 청구 등 대응을 할 수 있었다.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시민들의 금융 복지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액대출 상품이 대거 출시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부채 문제를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센터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졌다. 올해는 '금융복지상담 서포터즈'를 위촉해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운영,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 금융권과 협력을 통해 장기연체 악성채권, 일명 '죽은채권'을 일괄 소각해 실질적인 빚 탕감을 도모하고 있다. 앞서 2019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협약을 체결, '추심없는 채무조정' 체계도 갖췄다.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하면 캠코가 보유한 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부담액의 최대 22%까지 추가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장애인 금융사기 예방, 건전한 저축 및 투자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닥터 가계부'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A씨처럼 상담자의 재무상태, 가정경제 상황을 살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자활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부채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금융 복지를 당당한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시민행복 실현' 광산구 공직자들은 열공중

'늘 배움 광산' 교육 연중 운영…행정서비스 개선

광주 광산구가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구정목표인 시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021 늘 배움 광산'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늘 배움 광산'은 공직자들이 꾸준한 학습을 통해 시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만들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산구는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집합교육과 별도로 자체 교육예산을 세워 행정현장과 직무 중심의 혁신 교육과정을 올해 3월부터 개설·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크게 시민행복, 안전광산 등 구정 핵심가치 교육과 8·9급 공무원 직무교육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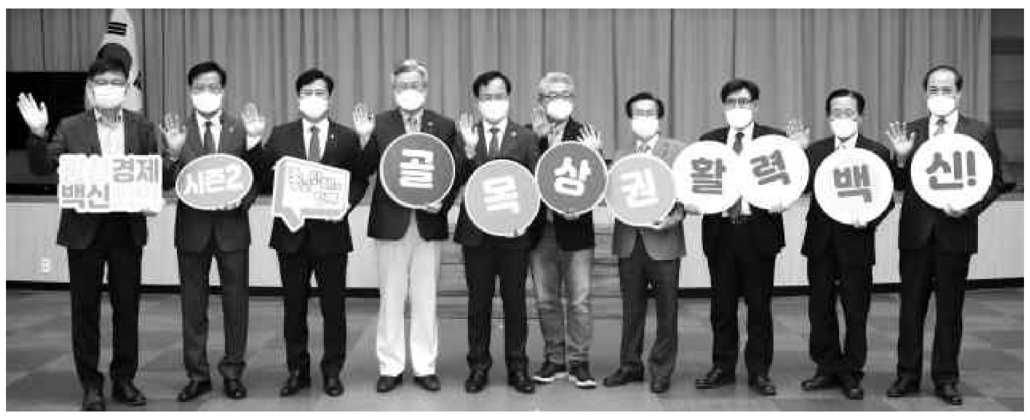
지난 3월에는 8·9급 5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맞춤형 교육을 신설 운영했다. 이번달에는 '경제활성화 편'을, 7월부터 11월까지는 '안전광산 편' 등 구정테마 교육과 명사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능률을 높이고, 동료 간 노하우도 공유하면서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며 "시민행복을 위해 공직자 스스로 늘 공부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경제백신회의-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상생 협력 나선다



28일 오후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열린 광산경제백신회의와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간 상생 협약식에서 김삼호 광산구청장(왼쪽에서 5번째) 등 참석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지역경제 거버넌스인 광산경제백신회의가 기독교교단협의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선다. 광산경제백신회의 시즌2의 신호탄이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지난 28일 오후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 하상용 경제백신회의 상임대표, 이혜숙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조광수 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광산경제백신회의와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는 이날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는 대표를 추천해 광산경제백신회의 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광산경제백신회의 일원이 돼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다. 외식하기, 광산경제백신 펀딩 등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종교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독교교단협의회의 참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산경제백신회의는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자원들의 참여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며 "기독교교단협의회의 참여는 더 큰 시너지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지난해 4월 민.관.산.학.언 등 44개 기관.단체가 결성한 지역경제 거버넌스다. 1% 희망대출, 문화예술연대 아트마켓 등 13가지 경제백신을 처방, 연대.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이용빈 의원, "장마철 예측 가능한 재난 대응책 마련할 것"

지난해 수해지역 복구 현장점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대변인)이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지난해 집중호우로 범람했던 광산구 평동천 복구현장을 방문해 제방 유실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소촌저수지의 범람과 유실로 피해를 입었던 소촌공단과 호남대학교 앞 친수공원에 있는 파크골프장 등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또 급경사지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천 및 재해복구 현장 등을 둘러보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재해복구 사업들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영산강·황룡강이 범람하면서 농경지, 주택, 상가와 산업단지 내 기업들 등 수해지역 범위가 컸고, 100여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현재는 피해복구를 위해 135억원이 투입돼 막바지 재해복구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해부터 수해 현장 곳곳을 살피며 수해 복구 작업에 전력을 다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장마철만 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지 노심초사할 지역주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예측가능한 재난 대응책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같은 지역에서 반복된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고 한층 높은 기준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수해 이전 상태로 복구보다는 강화된 재난 메뉴얼에 맞춰서 훨씬 더 완벽한 대응으로 홍수나 수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피해복구 현장에는 광산구의회 박현석 부의장을 비롯한 윤혜영, 박경신, 공병철 구의원과 광산구청 이돈국 부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대변인)과 이돈국 광산구 부구청장 등이 지난해 집중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평동천 현장 등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